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평택호에 동자개 치어 7만4천마리 방류

[윤동현]

동자개 우량 종묘 7만4천 마리 방류...누적 치어 200만 마리 돌파
준설사업 수익 지역 환원...수산자원 회복·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29일 평택호에서 열린 치어 방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동자개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평택호의 수산자원 회복과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치어 방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29일 평택호에서 평택시 관계 공무원과 내수면 어업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자개 치어 7만4천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평택호에 방류된 동자개는 길이 4cm 이상의 우량 종묘다. 공사는 방류에 앞서 동자개에 대한 전염병 및 유전자 검사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의뢰했다.

공사는 평택호 준설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치어 방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준설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평택호 수산생태계 보전과 지역 어업인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투입한 금액은 모두 4억3천100만원이다. 이를 통해 동자개와 메기, 붕어, 뱀장어 등 평택호에 방류한 치어는 누적 200만마리를 넘어섰다.

공사는 지속적인 치어 방류를 통해 평택호 내 어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족자원 보호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창원 지사장은 "앞으로도 평택호 수산자원 생태계를 보전하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

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ESG 경영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